

먹고 살자

Eat & Live

요한복음 6:35-37

그리니치 한인교회

2011년 8월 7일 성찬식 설교

³⁵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³⁶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³⁷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먹을 것

창세기 첫 장 끝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창조가 완성된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 직전에 하신 것, 그러니까 천지창조 사역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뭔지 혹 눈여겨보셨습니까? 마지막 여섯째 날 일인데 그 날 갖가지 짐승을 만드시고 끝으로 사람도 만드신 다음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지요? 그런 다음 끝으로 한 말씀을 더 하셨는데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여기서 식물은 먹을거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천지창조 마지막에 하신 일이 바로 사람에게 먹을 걸 지정해 주신 일입니다. 사람에게는 채소와 과일을 또 동물들에게는 푸른 풀을 음식으로 주셨습니다. 그런 다음 만물을 한 번 바라보고는 “그래, 이거야! 이젠 다 됐구나!” 하며 흡족해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첫 사람 아담을 에덴동산에 두신 다음 아담에게 처음 하신 말씀도 먹는 데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죄로 찌든 인생을 살다 보니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된다” 하신 그 말씀에만 신경을 씁니다만 하나님이 그 전에 하신 말씀도 중요합니다. 두어 달 전에 살펴보았지요? 뭘니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얼마든지 먹어라.” 먹지 마라 하시기 전에 마음껏 먹으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에덴동산에는 동물, 식물 등 여러 가지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동산 한 가운데는 꼭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뭘니까? 생명나무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지요. 둘 다 먹는 겁니다. 하나는 먹어도 되고 하나는 먹으면 안 되는 거지만 둘 다 과일나무, 곧 열매를 먹을 수 있는 나무였습니다. 동물을 먹으라 하시기 전이니 과일이 주식이었겠지요? 동산 한 가운데 자리 잡고 있던 건 바로 사람의 주식, 먹을거리였습니다.

먹어야 산다

먹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먹어야 사니까 그렇지요.

우리는 다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도 만드시고 땅도 만드시고 하늘도 만드시고 해, 달, 별도 만드셨지만 이것들은 산 게 아닙니다. 그런데 풀과 채소와 나무 이런 것들은 산 것으로, 생물로 만드셨습니다.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게 하셨습니다.

생물 아닌 것, 곧 무생물은 그냥 있으면 됩니다. 흙, 돌, 물, 공기, 이런 것들은 그냥 있습니다. 새로 생기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생물은 없던 게 생깁니다. 채소와 과일나무를 만드실 때 다 씨라는 걸 만들게 하셔서 그 씨를 통해 새 생명이 생기도록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은 있다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생명이 있다가 없어지는 걸 죽는다고 하지요. 생물은 죽습니다. 왜 죽습니까? 살았었기 때문에 죽습니다. 무생물은 안 죽습니다. 살아야 죽는데 산 게 아니니 죽을 수도 없지요.

살아있는 건 움직입니다. 안 움직이면 죽은 겁니다. 그렇게 움직이면서 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가 생명을 유지하는 겁니다. 생명은 한 번 생기면 계속 살고 싶어 합니다. 생존본능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래서 생명은 중단되지 않도록 최대한 애를 씁니다. 식물의 경우에는 물과 공기를 받아들이고 또 햇빛도 받아야 됩니다. 동물의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먹어야 됩니다.

먹어야 삽니다. 생기는 순간부터 먹어야 됩니다. 언제 먹는 게 끝납니까? 죽으면 끝나지요. 그래서 “죽었다”는 말 대신

“밥술갈을 놓았다” 하기도 하지요. 먹어야 살고 살아야 생육도 하고 번성도 합니다. 안 먹으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다 죽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주신 다음 마지막으로 먹을 걸 정해 주셨습니다. 동물에게는 풀을 양식으로 주시고 사람에게에는 채소와 과일을 먹을거리로 주셨습니다. 창조하신 생명이 계속 유지되게 하시려고 먹을 걸 주신 겁니다.

먹는 것 사는 것

먹어야 삽니다. 물론 독약은 먹으면 죽으니깐 조심해야 되지만 우리가 먹는 건 다 살기 위한 거지 죽기 위한 건 없습니다. 먹으면 삽니다. 그래서 먹는 건 곧 사는 것과 같습니다. 뒤집어 말하면, 사는 게 또 먹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결국은 그렇게 먹는 겁니다. 한 주간도 열심히 일하셨지요? 그렇게 일해 돈을 벌었습니다. 그 돈으로 뭘 합니까? 먹을 걸 사지요. 그래서 먹고 삽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살았는데 열심히 산 그게 열심히 먹은 겁니다. 노동을 해 돈을 받는다는 건 참 귀한 일입니다. 왜요? 먹는 일이지 사는 일이니깐요.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에덴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에게 땅을 갈게 하셨습니다. 농사를 짓게 하셨는데, 땅을 갈아야 근육도 생기고 건강도 유지한다고 시키신 건 아니겠지요? 농사는 곡식을 기르는 일입니다. 그걸 먹어야 살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니 농사, 곧 아담이 한 노동은 내 목숨 유지할 음식을 만든 일입니다. 아담이 낳은 아이들도 하나는 농사를 짓고 하나는 양을 쳤습니다. 둘 다 내 먹을 걸 만들기 위한 일입니다. 사는 게 먹는 거고 먹는 게 사는 겁니다. 살았기 때문입니다.

살려고 먹느냐 먹으려고 사느냐, 질문이 틀렸습니다. 씻으려고 샤워하느냐 샤워하려고 씻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먹는 게 사는 거고 사는 게 먹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하기 전날 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을 잡아 먹으라 하셨습니다. 양을 죽여 음식으로 만들고 그 음식을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먹으라 하셨으니 무슨 말입니까? 살라는 말씀이지요. 목숨만 부지한다고 산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노예생활을 했습니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구원입니다. 살 것입니다. 그래서 먹으라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제대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나와 광야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만나라는 음식을 주셨습니다. 광야는 빈들입니다. 채소도 과일도 없고 농사지를 땅도 없습니다. 그러니 노동도 못 합니다. 그렇지만 살라고 구원하신 백성 아닙니까? 살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먹을 걸 주셨습니다. 창조하신 생물을 위해 음식을 정해 주신 것처럼,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을 계속 살게 하시려고 만나를 주신 겁니다.

영생의 양식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 먹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팔복 가운데도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하시고는 그런 사람은 주림과 목마름을 해결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비유 가운데서도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 같은 걸 말씀하셨습니다.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면 삼십 배 육십 배 백배 열매를 맺는다 하셨는데 그 열매가 바로 우리가 먹고 사는 음식, 우리 생명을 유지하게 만드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심지어 당신 자신이 곧 음식이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언급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먹은 것처럼 이제는 주님을 먹어야 한다 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하셨습니다. 주님을 먹기만 하면 다시는 주리지 않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을 마시기만 하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먹으라, 무슨 말씀입니까? 살라는 말씀이지요? 안 먹으면 죽습니다. 먹어야 삽니다. 주님이 생명의 떡이라 하셨으니 주님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먹어야 산다 하셨지만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이미 산 사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무덤 앞에 소주 한 잔 부어 놓고 돼지고기도 한 점 갖다 놓습니다. 그럼 그거 누가 먹습니까? 갖다 놓은 사람이 먹거나 나중에 동물이 먹겠지요. 죽은 사람은 그거 못 먹습니다. 산 사람이나 산 동물만 먹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먹으라 말씀하시는데 죽은 사람이 아닌 산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자는 산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다 주님께로 옵니다. 살았으니 움직입니다. 옵니다. 살았으니 먹습니다. 그런 사람, 먹을 수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먹으라 하십니다.

산 사람은 먹을 수 있습니다. 먹을 수 있으니 먹어야 됩니다. 안 먹으면 오래 못 삽니다. 먹어야 됩니다. 아버지께서 부

르셨으니 우리는 살았습니다. 그렇게 산 우리에게 주님은 나를 먹어야 된다 하십니다. 주님을 먹어야 된다는 말씀은 우리가 이미 산 사람이라는 뜻이면서 또한 그렇게 부지런히 먹고 목숨을 잘 이어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떡 잠시 굼었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을 얻었다는 증거로 또 영원한 생명을 언젠가는 실체로 가질 수 있다는 소망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배부르게 할 것

몸을 위해서도 많이들 먹습니다. 안 먹으면 죽으니 먹지만 요즘은 너무 먹어서 영양가가 없는 걸 찾아 먹기도 합니다. 참 이상한 세상이 됐지요. 그렇지만 칼로리가 적은 그 음식도 내 몸에 좋은 것이라 해서 먹는 것이니 결국은 이로우나 해로우나 따져서 먹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살려고 먹는 것이니 사는 데 도움이 되는 걸 먹어야 됩니다. 독은 먹으면 안 되겠지요. 중금속도 먹으면 안 됩니다. 살자고 먹는데 사는 데 방해가 되는 걸 먹으면 안 되지요. 하나님은 같은 원리를 주 예수를 먹는 데도 적용하라 하십니다. 영생의 양식, 이걸 최우선으로 먹어야 된다 하십니다. 다시 말해 다른 건 못 먹어도 이걸 꼭 먹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몸의 양식은 좀 못 먹어도 이 양식만큼은 꼭 먹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사 55:1-2)?

예수 믿는 사람이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는 이유가 이 구절에 있다고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서 자주 들었습니다. 담배는 양식도 아니고 피워도 배가 안 부르니까 피우면 안 된다. 그 때는 순진하게 그런 뜻인 줄 알았지요. 담배는 안 되는데 껌은 왜 되는지 그 때는 잘 몰랐습니다. 어쨌든 이 구절은 담배 피우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몸이 살기 위해 양식을 먹는 것보다 영혼이 살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몸의 양식은 먹으면 배가 부르지만 일시적입니다. 그거 많이 먹어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먹으면 진짜 사는 것, 곧 진짜 양식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 예수는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주리지도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신 참 양식이지요.

성찬식

오늘 또 한 번 성찬식을 하면서, 먼저 먹는 게 우리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한 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사는 게 알고 보면 먹는 거고, 먹는 게 또 사는 겁니다. 한 주간 열심히 살아 돈 번 그제 한 주간 열심히 먹은 거지요. 먹을 수 있다는 건 살아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또 한 번 성찬식을 가지면서 영혼의 목숨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성찬은 주 예수를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주 예수를 먹고 마셔 사는 일이 성찬입니다. 우리는 다 먹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살았다는 뜻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주셨기에 이렇게 나와 예배도 드리고 성찬식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못 합니다. 그러니 예배드리고 성찬식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먼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또한 성찬은 약속입니다. 먹는 것은 지금 살았다는 것뿐 아니라 더 살겠다는 의지입니다. 살려고 먹습니다. 제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 예수의 삶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이걸 우리 각오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 주셨으니 풍성한 생명을 얻어 누리야 되겠습니다. 주님,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간구로, 이런 각오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가 성찬을 갖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사실 먹고 마시는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 먹는 걸 주로 말씀하신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먹고 마시는 이야기로 성경을 마무리하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오늘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먹고 생명의 물을 마시라고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 예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이걸 먹고 마심으로 이제는 좀 사는 것 같이 제대로 믿고 제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각오도 다시금 다지고 우리 주님이 속히 다시 오셔서 이 어설픈

모습을 얼른 완전한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권수경 목사)